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림’에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목숨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진정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슬프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다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은 그들이 순교로 목숨을 잃은 것을 ‘목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경축’하는 날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러하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 또한 ‘다하여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죽음을 넘어 영원을 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러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시작, 하나님 사랑과 계획의 완성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까? ...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2독서)



조혜용(요셉) 신부
철성(육군 제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지혜 3,1-9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로마 8,31-39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영성제송

루카 9,23-26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명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명하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어느 동리에 열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세 가족만 빼놓고는 전부 다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세 가족은 천주교에 나오기는 고사하고 천주교에 입교하기 시작한 새 교우들과 원수가 되어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 신자들은 이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와 친절과 겸손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다운 권고까지 하여 주었으므로 저들도 감동되어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그리스도 우리 안의 양들이 되어 모두 힘을 합하여 새 공소집을 건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공소집에 갔을 때에 그들은 거의 모두가 기도문과 교리 문답을 잘 배우고 영세 준비를 훌륭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소에만도 어른 영세자가 32명이고, 어린이 영세자가 10명이며, 예비 신자가 17명이나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배워 세례받을 준비를 다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병에 걸려 자기 방에서 문밖 출입도 못하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공소까지는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그는 세례받기 위해 공소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와 함께 입교하여 세례를 받으러 가는 동무들을 불러모으고 하느님 앞에서 장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료들이 병자에게 가마를 타고 가자고 제안하자, 병자는 “나 같은 죄인이 가마를 타고 편안하게 간다면 오만불손한 짓이 될 것이요. 차라리 나를 지계에나 싣고 가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병자는 첫날은 지계에 싣려 갔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 집에서는 문밖 출입은커녕 누워 있어도 편안해 하지를 못했었는데, 다음 날에는 지계도 버리고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눈이 두 자나 쌓인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도 별로 힘겨워하지도 않고 춤추다시피 성큼성큼 뛰어서 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공소에서 열흘 이상 동안이나 저의 도착을 기다렸으나 아무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열렬한 마음으로 세례받은 후 천상의 환희에 가득 넘쳐 영혼도 낮고 육신도 나아서 이중으로 건강하게 되었음을 하느님께 찬미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놓아라



그 잡은 손을 놓고, 나를 보는 그들의 눈을
그 품은 맘을 놓고, 마주하자.
그 쌓인 한을 놓고.

그렇게 시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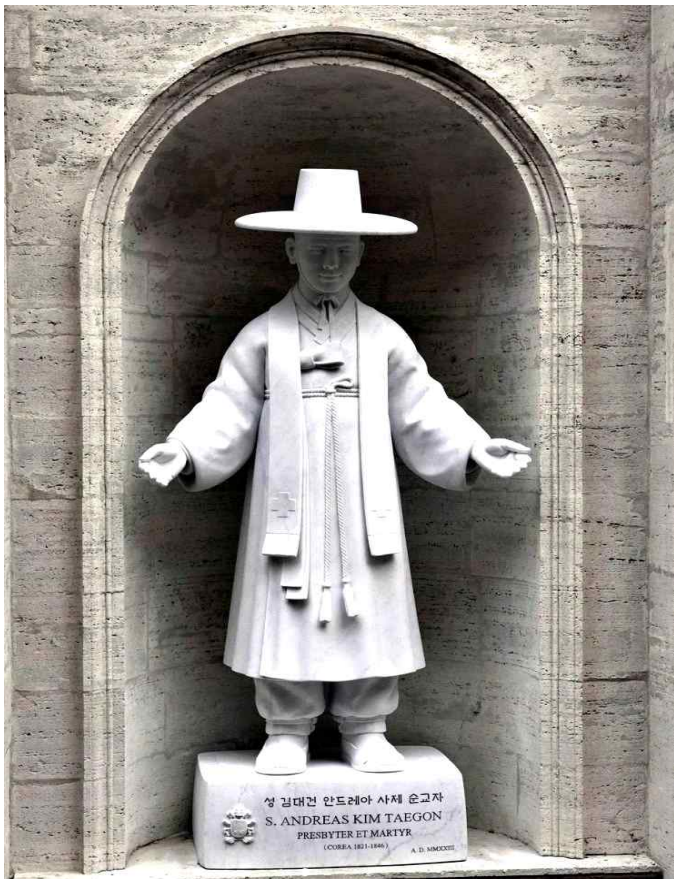
눈을 돌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조각상



A statue of St. Andrew Kim Tae-gon
 힌진섭 조각가 / 3.7x1.8m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동상이 작년 9월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기념하여,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오른쪽 외벽에 있는 4.5m 높이의 아치형 벽감에 세워졌다.

3.7m 대리석으로 제작된 본 동상은 전 세계 천주교의 본산인 로마에 세워진 첫 번째 아시아 성인의 조각상이다. 한국의 힌진섭 조각가가 제작한 본 조각상은 한국의 전통 의복인 도포를 입으시고 갓을 쓰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모습을 재현해 내었다. 두 팔을 벌린 모습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1821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신 신부님은 스물네 살에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사목활동을 하시다 1846년 순교하셨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인 1984년에 시성되었다.

김은혜(엘리사벳)



2023년 9월 16일(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진 외벽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이
 제막식을 거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연합뉴스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힌섭대 박형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국 주교단 사도좌 정기 방문

때·곳: 9월 9일(월)~24일(화), 로마 바티칸 교황청

- 저작사 1지구 사제모임

때·곳: 9월 26일(목)~27일(금), 군중영성센터

“**환희와 기쁨을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